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2. 2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獨, 테러희생자를 위한 국가 추모의 날 공식 제정

- 2.15 獨 내무부는 마드리드 연쇄테러사건*을 기념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'테러희생자를 위한 국가 추모의 날(3.11)'을 공식 제정, 향후 해당일에는 전국의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할 것임을 발표

* '04.3.11, 알카에다의 열차 연쇄테러 공격으로 191명 사망, 2천여명 부상

미주

○ 美 총기참사 유족, 총기제조사와 874억원에 합의

- 2.15 샌디훅 총기난사* 희생자 9명의 유족들은 범행에 사용된 소총 제조사 레밍턴의 광고가 총격 사건을 부추겼다고 소송을 제기, 제조사와 7천300만달러(약 874억원)에 보상을 합의했다고 발표

* '12.12월 범인, 모친 살해 후 샌디훅 초등학교에 난입,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 살해

아·태평양

○ 아프가니스탄, 탈레반 11만 정규軍 창설 예정

- 2.16 아프간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 「무자히드」는 자신들이 아프간 再집권 후 지난 9월부터 군대 창설을 추진, 6개월 만에 11만명 규모의 정규군을 출범시킬 예정이며 필요하면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

* 아프간 정부는 최근 대규모 열병행사를 열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, 舊 소련군이 철수한 2.15일을 국경일로 선포

- 해수부, 高위험해역 진입 선박 대상 무장 특수경비원 승선 의무화
 - 2.17 해수부는 △해적피해 다발 해역 高위험해역 지정 △ 무장 특수경비원 승선 의무화 등의 '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 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(해적피해예방법)' 개정안을 18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

중 동

- 예멘, 후티叛軍 설치 지뢰 폭발로 정부군 9명 사망
 - 2.20 예멘軍은 후티叛軍이 사다州 인근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지뢰가 폭발해 정부군 9명이 사망하였으며, 叛軍에 의한 무차별적인 지뢰설치로 군인·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비난
 - * 한편, 국제 인권·구호단체들은 “예멘 분쟁지역 內 형성된 지뢰지대 규모가 제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치명적”이라고 비판
- 이스라엘, 이란정부의 자국 혁명수비대 '테러조직 해제 요구' 비판
 - 2.21 「베네트」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의 美유대인 단체 대상 연설에서 이란이 '핵 합의(JCPOA) 복원 협상' 조건으로 자국 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“뻔뻔스럽다”며 강하게 비판
 - * 美 「트럼프」 행정부는 지난 '19년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

아프리카

- 세네갈 대통령, 독일에 말리 지속 주둔 촉구
 - 2.21 「마키 살」 세네갈 대통령은 자국 방문 「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」 독일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“말리를 버려서는 안된다. 여러분은 사헬에 주둔해야 한다. 아프리카가 필요로 한다”며 지속 주둔 촉구
 - * 독일은 유엔 평화유지군(1,170명) 및 유럽 군사 훈련단(328명)을 통해 병력 지원

나이지리아, 대중교통 겨냥 연쇄 폭탄테러

- '15.2.25 나이지리아 요베州 버스정거장과 카노州 버스터미널 두 곳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,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
- 1차 폭발은 11:40경 북동부 요베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류장에 일시 정차중인 미니버스 內 한 남성이 짐칸에 가방을 싣고 막 승차하는 순간 발생, 승객 12명 전원을 포함해 총 17명이 사망하고 27명 부상
 - * 짐칸에 가방을 싣고 탑승하려던 승객이 범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
- 2차 폭발은 1차 공격 발생 약 4시간 후인 15:40경 북부 카노州의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승객들이 하차하는 순간 발생, 10명의 추가 사망자 초래
 - * 카노州 우딜發 버스 남성 승객 2명이 터미널에서 하차 직후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
- 공격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오지 않았지만, 전문가들은 '보코하람'이 요베州 및 카노州를 근거지로 활동하며 그간 유사 테러를 자행한 前例를 이유로 同 사건도 이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
 - * '보코하람'은 '09년부터 1만3천여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했으며, 최근 활동지역을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니제르·카메룬 등으로 확대
- 한편, 나이지리아 「궂력 조너선」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테러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, '보코하람의 진압이 머지 않았다'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
 - * 나이지리아는 니제르·카메룬·차드 등 4개국 연합군을 편성, '보코하람' 소탕에 공동 대응

< 보코하람(Boko Haram) >

- (결성) '서구식 교육은 죄악'이라는 뜻이며, '02년 「무함마드 유수프」가 조직
 - 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'13.7), 미국('13.11), UN('14.5)
- (핵심인물) 「아부바카르 셰카우」(現 최고 지도자)
- (연계세력) ISIS, 바쿠라그룹
- (활동지역) 나이지리아(요베·카노·바우치·보르노·플래토州 등 중·북부), 카메룬 북부, 차드 서부, 니제르 남동부 일대
- (활동수법) 對정부 게릴라戰, 마을 습격 및 민간인 무차별 학살
- (참고사항) '15.3월 「아부바카르 셰카우」가 ISIS에 충성을 맹세하였으나, '16.8월 ISIS가 「알 바르나위」를 신임 지도자로 임명하자 내분 발생, 이후 「아부바카르 셰카우」가 이끄는 보코하람과 「알 바르나위」의 「ISIS-西아프리카지부」로 분열